

朝·明 聯合軍 騎兵作戰의 展開 樣相

徐 仁 漢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리말
2. 明軍 參戰部隊의 構成
3. 平壤城 攻擊戰과 騎·步兵 運用
4. 碧蹄館 遭遇戰과 騎兵 單獨作戰
5. 南原城 防禦戰과 騎兵 孤立防禦
6. 맺음말

1. 머리말

朝鮮이 明나라에 전투부대의 派兵을 요청한 것은 壬辰倭亂이 발발한지 불과 1개월이 경과하던 1592년 5월 중순 무렵이었다. 臨津江 防禦線의 붕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우부승지 柳夢鼎이 聖節使 겸 請援使로서 明에 파견되어 지원을 요청하면서 明軍의 파병문제가 양국간 현안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명에 파병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조선 조정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른바 '內附論'과 '固守論'으로 양분되어 갈등을 겪다가 결국 명에 지원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¹⁾

한편 명에서는 朝鮮의 전투부대 파병요청에 대해 兵部尙書 石星을 중심으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어 갔다. 즉, 遼東의 安全을 위해 명군이 조선에 출병하여 日本軍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遼東에 朝鮮人 避亂民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은 朝鮮과 日本이 공모하여 함께 遼東을 공격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³⁾ 결국 使臣을 파견하여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비로소 파병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⁴⁾

이때의 파병은 일본군이 大同江 線을 넘어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명이 鴨綠江 線을 防禦線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압록강이 冬節期에 結氷하면 육지나 다름없이 손쉽게 도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⁵⁾ 그래서 가장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遼東 군사 5천여 명을 요동 副總兵 祖承訓이 이끌고 7월에 鴨綠江을 건너 朝鮮에 입국하게 된 것이다. 평양성의 일본군을 대동강 이남으로 축출하는 임무를 띠고 입국한 조승훈 군은 7월 19일에 평양성의 일본군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참패를 당하자 아예 遼東으로 돌아가 버렸다.⁶⁾ 조승훈은 요동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을 모함하는 허위 보고서를 본국 兵部에 올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兵部에서 파견한 錦衣都指揮使 黃應暘이 실사를 벌였

1) 孫鍾聲, 「壬辰倭亂時 對明外交 - 請兵外交를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제14집, 1990, 172~180쪽.

2) 『선조실록』 권27, 선조25년 6월 23일 (신해); 劉九成,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 『史叢』 제20집, 1976, 4쪽.

3)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4쪽.

4) 李肯翊, 『燃藜室記述』卷十六, 「宣祖朝故事本末 - 求救明朝收復京城 -」.

5)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9월 11일 (병진); 崔韶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 (一)」, 『東洋史學研究』 제11집, 1977, 67~68쪽.

6) 柳成龍, 『懲毖錄』卷一의 조승훈 부대 파병과 평양성 공격기사 참조.

다. 그는 조선의 실정을 직접 확인하고 兵部尙書 石星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石星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명나라 조정에 일본군의 침공 실상이 알려지면서 비로소 대규모 부대의 파병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⁷⁾

조선에 파병된 명군은 대부분 조선군과 연합하여 '朝·明 聯合軍'으로 활동하게 된다. 생소한 지형과 환경에서 작전하는 明軍으로서는 朝鮮軍의 적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선군의 입장에서도 명군의 적극적인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조·명군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최초로 성공한 전투가 平壤城 攻擊戰이며, 주력군은 명의 騎兵이었다. 평양성의 성공적 탈환에 이어서 전개된 碧蹄館 遭遇戰은 北兵인 騎兵을 主力으로 하는 朝·明軍 騎兵이 步兵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단독으로 日本軍 步兵과 야전에서 접전하여 최초로 실패한 전투이다. 그리고 南原城의 防禦戰은 소수의 朝鮮軍 步兵이 참전했으나 역시 主力軍인 明의 騎兵이 日本軍 步兵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함으로써 성을 빼앗긴 전투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세 전투는 朝·明軍이 聯合軍을 형성하고 明의 騎兵이 主力軍으로서 작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명 연합군 騎兵作戰의 전형이 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宣祖朝 記事를 중심으로 騎兵의 攻擊戰·遭遇戰·防禦戰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成功과 失敗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地形 및 地勢가 세 가지 형태의 전투에 미친 각각의 영향에 관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明軍 參戰部隊의 構成

명은 파병을 결정한 후에도 곧바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지는 않았다.

7) 申晔, 『再造藩邦志 二』, 『大東野乘』第三十六.

1592년 3월에 寧夏에서 일어난 副總兵 哮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병력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각종 軍需品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도 출병을 지연시켰던 주요 원인이었다.⁸⁾ 浙江地方 출신의 유격장군 沈惟敬을 협상사절로 조선에 파견한 것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지연전술이었다.⁹⁾ 조선에 파견된 심유경은 1592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평양성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회담한 결과 10월 20일까지 50일간 잠정 휴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해 9월에 반란이 평정되자 비로소 대규모 병력을 조선으로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

명의 출병계획에 따라 北兵을 주축으로 편성된 이른바 東征軍은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었다. 兵部 右侍郎 宋應昌이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經略에 임명되고, 提督 李如松은 군사지휘권을 부여 받아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당시 宣祖는 경략 송응창이 元帥와 같고 제독 이여송은 防禦使와 같은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北兵이 중심인 명군들은 浙江省 杭州 출신의 宋應昌이 儒學者이기 때문에 戰爭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명군 대부분이 李如松이 소속된 北兵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北兵이면서 武人 출신인 李如松을 지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조정은 宋應昌과 李如松의 位階가 朝鮮으로 출병할 당시에는 동일했으나 明의 神宗이 송응창에게 1품관의 官服을 하사한 후로는 文臣인 경략 송응창이 武臣인 제독 이여송의 상급자로 지위가 상승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왕 宣祖는 출정 당시에 이미 송응창이 神宗으로부터 寶劍과 함께 副將 이하를 통제하는 指揮權을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애당초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¹⁰⁾ 이러한 이원적 지휘체계는 조선이 명군과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문제에 많은 혼선을 빚게 하

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6~37쪽.

9) 韓明基, 「임진왜란과 明軍」, 『壬辰倭亂 史料叢書 對明外交』, 국립진주박물관, 2003, 57쪽.

10) 『선조실록』 권38, 선조26년 5월 27일(경진).

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명군 스스로의 지휘체계상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군사지휘권을 가진 제독 李如松이 총병력 10만이라고 선전하면서 결빙한 鴨綠江을 도하하여 조선에 입국한 것은 1592년 12월 25일이다. 이때 宣祖는 義州 龍灣館에서 李如松을 비롯한 명군 주요 지휘관을 접대하였다.¹¹⁾

당시 제독 이여송의 지휘하에 입국한 명군은 실제로 騎·步兵 5만 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 압록강 도하 후 불과 10여 일 만에 실시된 평양성 공격전에 투입된 군사는 46,500명 중에서 43,500명이었다.¹³⁾ 이를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 후로 朝鮮에 추가 진입한 병력 8천 명을 포함하면 당시 李如松 휘하에는 총 54,500여 명의 騎·步兵이 소속된 셈이다.¹⁴⁾ 기록상에 보이는 查大受의 기·보병 3천 명의 비율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步兵은 약 9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기 병	보 병	기·보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독 동지 李如松의 표하 첨사 方時春, 참 장 李 寧 : 1천 • 부총병 楊元 2천 등 총 35,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격장군 吳惟忠 3천 등 8,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병 查大受 3,000명
75%	18%	7%
총 계 : 기·보병 46,500 명		

11) 『선조실록』 권33, 선조25년 12월 23일 (기유).

12) 宋應昌, 『檄遼東楊總兵』, 『經略復國要編』卷二.

13)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10일 (을미).

14)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明入援與平壤會戰』, 『中國歷代戰爭史』 제14책, 1979년 수정판, 421쪽에는 정비록과 일본측 자료를 인용하여 5,400명으로 보고 있다.

특히 步兵은 騎兵에 비해 매우 소수가 참전하고 있다. 騎兵의 경우 30여 명의 지휘관 휘하에 적게는 5백 명에서 많게는 2천 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소속된 단위부대가 편성되었다. 반면에 步兵은 좌참장 駱尙志의 3천 명, 유격 장군 吳惟忠의 3천 명, 王必迪의 1천 5백 명, 戚金의 1천 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단위부대의 규모면에서는 기병부대를 능가한다. 이는 보병이 전투 장비나 전술면에서 騎兵과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南兵으로 불리는 이들은 浙江·福建 등과 같은 남쪽 해안지방에서 동원된 步兵으로서, 騎兵인 北兵과는 戰鬥裝備가 다를 뿐만 아니라 對敵戰術도 다를 수밖에 없다. 騎兵인 北兵에 비해 步兵인 南兵의 최대 장점은 명의 남쪽 지방에 횡행하던 倭寇들을 제압하기 위해 개발된 이른바 南兵戰術' 혹은 '戚繼光 戰法(戚法)' 등으로 불리는 步兵戰術을 숙달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平壤城 攻擊戰은 조선군이 명군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구성한 朝·明 聯合軍으로서 승리를 거두고 攻勢移轉의 전기를 잡게 되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李如松이 이끄는 明軍 대부분이 朝鮮에 파병되어 다수인 騎兵과 소수인 步兵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한 최초의 전투로서 다른 전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平壤城 攻擊戰과 騎·步兵 運用

(1) 平壤城 戰鬥의 展開 過程

平壤城 戰鬥은 朝·明 聯合軍이 1593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불과 3일

15) 姜性文, 「朝鮮의 兵書와 兵學思想」,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봉명, 2000, 182쪽; 盧永九, 「朝鮮 增刊本《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軍史』 제 36호, 1998, 104~106쪽.

주야로 전개한 비교적 단기간의 攻擊戰이다. 그러나 역사기록은 1차 사료인 『宣祖實錄』에서조차도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宣祖修正實錄』과는 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두 기록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평양성 공격전의 대체적인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騎·步兵 運用 樣相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提督 李如松은 明軍을 이끌고 1592년 12월 25일에 鴨綠江을 도하한 후, 安州에서 평안도 체찰사 柳成龍과 평양성 공격전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이때 유성룡은 地圖를 준비하여 평양성의 地勢와 주요 通用門으로 연결되는 機動路 등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이어송은 요소요소에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경칭하였다.¹⁶⁾

그 후 明軍은 이듬해(1593) 1월 5일에 順安縣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이어송이 먼저 副總兵 查大受를 평양성의 일본군 진영에 파견한 것이 명군 주력부대와 일본군의 최초 접촉이다. 斧山院에서 회담하자는 통보를 받은 일본군 제1로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협상사절을 파견했으나, 사대수가 이들을 사로잡아 이어송의 지휘부로 압송함으로써 결렬되었다. 평양성의 일본군은 부산원에 파견된 협상요원이 도망쳐 오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명군을 주력으로 하는 朝·明 聯合軍이 평양성 근교로 진출하여 포위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593년 1월 6일 새벽부터다. 이때 都元帥 金命元이 지휘하는 朝鮮軍도 함께 이동하였다.¹⁷⁾ 그리고 성 안에서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白旗를 세우고 “자진해서 투항하는 조선 군민은 죽이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¹⁸⁾ 평양성 내부에 억류된 조선 군민을 일본군과 분리시키면서 일본군을 동요시키는 일종의 心理戰이다.

16) 柳成龍, 『懲誌錄』卷二. 조·명군의 연합작전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懲誌錄』에도 보이지 않는다.

17)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조선군의 임무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18)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이에 대응하는 일본군도 心理戰으로 맞섰다. 명군이 평양성 북쪽 牧丹峯 일대를 포위공격하자, 일본군은 1천여 명을 배치하여 함성을 지르며 鳥銃을 발사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때 명군은 일본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欺瞞戰術을 구사했다.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고지 쪽을 올려다보면서 공격할 기미를 보이다가 일본군이 내려다보면서 조총을 사격하자 별다른 대항 없이 쉽사리 퇴각해 버렸다. 명군의 모란봉 공격에는 休靜大師가 지휘하는 僧軍도 참전하였다.¹⁹⁾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추격전을 전개하였고, 추격당하던 명군 誘引組는 방패도 내버리며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런데 일본군이 무거운 쇠방패를 전리품으로 노획하여 되돌아가려 할 때 명군이 갑자기 돌아서서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때 이여송이 징을 울려 명군의 공격을 중지시켰으므로²⁰⁾ 晝間戰鬪는 상호간 탐색전 정도로 일단락되었다.

이날 밤의 夜間戰鬪는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데, 오히려 명군은 일본군을 물리치고 10여 급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宣祖修正實錄』에 의하면 吳惟忠의 南兵 진영이 기습을 받았다. 특별히 남병이 목표가 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명군은 騎兵 장애물로 설치한 '拒馬木'을 이용하여 진입을 차단한 채 火箭으로 照明을 밝히고 즉시 반격을 시도하여 10여 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명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의 야간기습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²¹⁾ 이상의 내용이 첫날 전투의 개략적 상황이다.

이튿날 7일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공격도 주력인 명군의 中·左·右營이 동시에 진격하여 포위망을 좁힌 가운데 普通門으로 진입하기 위해 일본군의 대응태세를 탐지해 보는 정도였다.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적극

19) 申晷, 『再造藩邦志 二』, 『大東野乘』 第三十六.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작전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0)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명인).

21)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명군이 퇴각하자 그 후미를 추격하였고 명군이 갑자기 기수를 돌려 반격하자 오히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보통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같이 騎兵이 機動力으로 일본군을 손쉽게 제압하였기 때문에 사령관 李如松의 자만심이 크게 고조되었을 것이다.

조·명군 사령관 이여송은 8일 아침에 出戰儀式을 거행한 후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려 북문인 七星門과 서문인 普通門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성 서측면 공격을 시도하였다. 일부 군사들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출동하였고, 이들은 사령관 이여송이 무계획하게 작전을 지휘한다고 불만을 나타내었다.²²⁾

騎兵部隊가 평양성 주변으로 진격할 때 말발굽에 깨진 얼음조각이 날려서 안개처럼 보일 정도였다면 인근 지형과 기상이 騎兵作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일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守城戰을 전개하는 일본군은 성가퀴 위에 오색 깃발을 펼쳐서 군세를 과시하였다. 그리고 긴 창과 큰 칼의 날을 나란히 세워 朝·明軍이 성벽을 기어오를 경우에도 대비했다.²³⁾

이 같은 상황에서 李如松은 親衛 騎兵을 이끌고 성 가까이서 攻城戰을 지휘하였다.²⁴⁾ 大砲 한 발이 발사되자 이를 신호로 각 군에 배치된 大將軍砲·佛狼機砲·霹靂砲·子母砲 등이 일제히 포격을 개시하고 뒤따라 火箭을 대량으로 발사하였다.²⁵⁾ 평양성 城門과 城壁을 파괴하면서 성 내부에 동시다발적으로 火災를 일으킴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총공세를 가하려는 火攻作戰이었다.

22)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남·북병과 조선군이 혼합된 공격전에서 상호간 연락체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엿보인다.

23)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24)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권35,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2백 명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1백~2백 정도의 친위 기병의 호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明軍入援與平壤會戰』, 『中國歷代戰爭史』 제4권, 423쪽; 李象鼎, 『兵學指南演義(1)』序, 國防軍史研究所, 1995.

이 작전은 마침 西風이 불어 砲烟이 모두 평양성 안으로 날려가고 불길도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효과가 증폭되었다. 공격하는 조·명군에 한층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여송이 군사들을 독려하여 城壁을 기어오르자 일본군도 전통적인 守城戰術로 대응했다. 근접하는 군사들에게는 鳥銃을 발사하고 城壁을 기어오르는 군사들에게는 끓는 물을 퍼붓고 큰 돌맹이를 굴러 내리는 대응전술이다.²⁶⁾

평양성 공격전에 참전했던 柳成龍의 저술인 『懲毖錄』에 의하면 駱尙志와 吳惟忠의 南兵들은 개미처럼 성벽을 기어올라갔고, 이를 저지하는 일본군의 칼과 창은 고슴도치 털처럼 성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사령관 이여송이 장병들의 戰意를 북돋우기 위해 뒷걸음치는 한 병사의 목을 베어 군사들에게 보이고, 최초로 성벽을 올라가는 부대에 고액의 褒賞金과 높은 官職을 주기로 약속하였다.²⁷⁾ 이 때문에 南兵의 저돌적인 공격이 전개되었으나 그에 따른 희생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명군을 총지휘한 李如松은 左協大將 張世爵 등과 북문인 七星門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이 門樓에서 완강히 대항하였으므로 大砲 사격으로 城門을 파괴한 후에 비로소 진입할 수 있었다. 이때 가장 먼저 진입하여 일본군 깃발을 뽑고 명군의 깃발을 올린 것은 낙상지의 南兵이었다.

이들 南兵은 16세기 중후반에 명의 戚繼光에 의해 창안된 무기와 새로운 戰鬥隊形으로 평양성 공격전에 선봉이 되어 많은 전과를 올렸다. 남병의 주요 무기인 籐牌와 狼筈, 長槍과 鎧鉞를 이용하는 전술은 조선에 처음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 近接戰에서 다수의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狼筈을 이용한 防禦와 등나무로 만든 가벼운 방패인 籐牌를 이용하여 前進하는 전술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²⁸⁾ 그리고 화약무기인 虎蹲砲는 기존의

26)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27)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柳成龍, 『懲毖錄』卷二. 이 문제는 탈환작전이 종료된 후에 이여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북병들을 중심으로 포상하고, 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입은 남병들을 푸대접함으로써 명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요인이 된다.

火砲를 가볍고 간편하게 개량한 長兵器로서²⁹⁾ 공격준비 사격을 통해 평양성의 성문이나 성벽을 붕괴시킴으로써 步兵의 攻擊路를 열어 주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李元翼이 평양성 공격전의 경과를 宣祖에게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南兵의 효용성이 北兵보다 월등한 것을 알 수 있다. 五色의 軍服을 입은 南兵들이 평양성에 먼저 입성했는데, 이들은 공성작전을 전개할 때도 北兵의 攻城裝備를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朝鮮軍의 天字銃筒을³⁰⁾ 사용하였다. 南兵들은 城壁의 돌을 손으로 잡고 기어올라갔으며, 일본군 1명이 전사할 때 평균 5~6명의 南兵이 전사할 정도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성을 과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³¹⁾

반면에 北兵은 南兵이 성벽을 넘어 들어가서 안에서 城門을 열어주자 비로소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가 殘敵을 소탕한 정도이다. 이때 騎兵은 短刀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步兵은 長槍으로 공격하며, 騎兵이 추격하지 못하는 협소한 지형의 적을 步兵이 공격하여 섬멸하는 양상이었다. 평양성 공격전에 步兵과 騎兵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조·명군이 평양성 내부로 진입하자 고니시(小西行長) 등 일본군 지휘부는 동쪽으로 후퇴하면서 大同江의 練光亭 일대에 구축된 진지로 이동하여 항전태세를 갖추었다. 이 전투에는 朝鮮軍도 함께 참전했다.³²⁾

28) 李象鼎, 『兵學指南演義(1)』序, 國防軍史研究所, 1995.

29) 盧永九, 「朝鮮 增刊本《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軍史』 제36호, 1998, 105~106쪽. 척계광의 전술은 그가 남긴 《紀效新書》와 군제를 연구하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0) 『선조실록』 권50, 선조27년 4월 17일(을축); 許善道, 「韓國火器의 形態考」,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300쪽. 대형화포인 天·地·玄·黃字銃筒은 둔중하여 이동에는 불편하나 공성작전에서 성문이나 성벽을 파괴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31)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32)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권35,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1일(병진).

그런데 칠성문과 보통문 일대에 구축된 진지에서는 여전히 일본군의 저항이 완강했다. 七星門을 지향하는 萬壽臺 진지에서 조총 사격으로 완강히 저항할 경우 명군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사령관 이여송의 軍馬가 鳥銃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격 부대가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참모진이 이여송에게 작전상 후퇴를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여송도 성 밖으로 철수하기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단시간에 평양성을 탈환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상황판단에 따라 일단 성 밖으로 철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은 平安兵使 李鎰, 防禦使 金應瑞 등의 지휘하에 평양성 공격전에 참전하였다.³³⁾ 이들은 明軍 제1진인 祖承訓, 駱尙志 부대와 함께 舍毬門으로 진입하였다.³⁴⁾ 특히 낙상지의 南兵은 浙江 地方에서 동원된 군사들인데, 제일 먼저 입성하여 일본군의 깃발을 뽑고 명군의 깃발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³⁵⁾

參將 駱尙志 부대는 步兵으로서 평양성 공격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이들과 함께 작전한 朝鮮軍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 공로에 대해서 기록조차 미미한 것은 明軍의 戰功을 높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조선군에 대해서는 명에 보내는 공식 외교문서의 초안에 “명군 한 부대와 조선군이 舍毬門으로 쳐들어갔다.”는 정도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명군의 공로를³⁶⁾ 찬양한 내용이다.³⁷⁾

그 후로 李如松은 조·명군이 평양성 밖으로 물러나자 張大膳을³⁸⁾ 통해

33)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34)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35)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36) 조선측이 명에 통보하려고 한 평양성 전투의 8일 당일 전과는 참수 1,285급, 생포 2명과 통사 張大膳, 노획마 2,585필, 노획품 455, 조선인 구출 1,015명 등이다.

37)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일본군 사령관 고니시에게 자진해서 퇴각할 것을 종용하였다. 결국 고니시가 안전한 철수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李如松은 平安兵使 李鑑에게 전령을 급파하여 中和 일대에 埋伏하고 있는 朝鮮軍을 철수시키도록 요구하였다.³⁹⁾ 조선군의 매복은 앞서 安州에서 柳成龍이 李如松과 평양성 공격계획을 논의할 때 협조된 사안이었을 것이다. 결국 李鑑은 매복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고, 평양성 전투가 끝난 후에 그 책임 문제로 李鑑이 곤욕을 치르게 된다.

日本軍은 야음을 이용해서 결빙한 大同江을 건너 平壤城을 빠져나갔다. 中和와 黃州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평양성 공방전이 시작된 직후에 이미 남하한 상황이었다. 이보다 며칠 전에 柳成龍이 黃海道防禦使 李時言 등에게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가 기습공격을 감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시언이 이끄는 조선군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굶주리고 병든 落伍兵 60여 급을 베었으며,⁴⁰⁾ 黃州判官 鄭燁은 90여 급을 베는 전과를 추가하였다.⁴¹⁾

이로써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전투는 종결된 셈이다. 그러나 조선군의 전공은 명군과 구분되어 별도 계산될 수 없었다. 따라서 모두 명군의 전공으로 확인된 일본군 수급은 1,285급이며 억류된 朝鮮人 1,225명을 구출한 것도 명군의 전공으로 계산되었다. 평양성 공격전에 대하여 『宣祖實錄』은 “南兵이 날래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으나, 明軍의 사상자도 많았으며 굶주려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는 자가 사방에 즐비했다.”라고 평가하였다.⁴²⁾

38) 張大膳은 浙江人으로서 일본군에 협조하고 있다가 포로가 되었다.

39)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40) 柳成龍, 『懲愆錄』 卷二

41)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42)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2) 南·北兵 葛藤과 朝鮮의 立場

평양성을 탈환한 후 조선 조정이 명나라 조정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평양성 승리의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는 兵部의 戰略이 주효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經略 宋應昌의 특별한 방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李如松이 병사들의 民弊를 근절시키고 전장에서 독전하여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⁴³⁾ 외교관례상 의례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오히려 조선군 1만 명을 포함한 4만 5천 명의 조·명 연합군으로 1만 5천 명의 일본군을 공격한 것이⁴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일 것이다.

어쨌든 평양성 공격전의 성공은 일본군의 사기를 위축시킨 반면, 조·명 연합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파죽지세로 남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평양성 탈환의 제일 공로자를 제독 李如松으로 인정하고 祠宇와 功德碑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였다.⁴⁵⁾

經略 宋應昌과 提督 李如松의 개인적 공로를 높이 치하하면서도 특히 李如松에 대한 찬사는 조·명군을 직접 지휘하여 평양성을 탈환한 제일 공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자세하다. 군사들의 紀綱이 확립되어 있고 실전에서는 앞장서서 독전한 내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⁴⁶⁾ 이여송 자신도 평양성 탈환에 고무되어 “官兵은 야전에 주둔하면서 身命을 버려 평양을 탈환할 수 있었으니, 그대들은 나라가 없는 데서 나라를 가졌으며 집안이 없는 데서 집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측의 식량과 말먹이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트집 잡아 ‘군사를

43)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44) 崔韶子,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한울아카데미, 1994, 231 쪽

45)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2일(정묘);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9월 1일(임자).

46)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이끌고 遼東으로 돌아가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 다시 나라를 잃고 집 없는 슬픔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⁴⁷⁾ 등의 협박성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조선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명군의 공적을 지나치게 찬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지원을 받는 조선측 입장에서 明軍의 功勞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기는 하나 지나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朝鮮 將卒들은 팔짱만 끼고 놀라 움츠린 채 지원하지도 못하고 鐵騎의 발굽에 먼지가 날리고 火箭에 맞아 불꽃이 하늘을 찌르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다.”라고⁴⁸⁾ 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조선측 문서의 草案과 명군이 만든 자체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李如松이 평양성 공격을 중지하고 물러나 있다가 적의 야간 탈출에 대비하여 매복부대를 사전에 투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명군측 보고서에는 명군 지휘관 李寧·祖承訓·葛逢夏 등이 군사를 이끌고 埋伏하여 退路遮斷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李如松이 楊元·李如栢·張世爵 등과 함께 추격하고, 이에 밀려 퇴각하던 일본군을 매복부대가 기습한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다.⁴⁹⁾ 이는 앞서 이여송이 平安兵使 李鑑에게 中和 일대의 조선군 매복부대를 모두 철수시켜 일본군의 退路를 열어주도록 요구했던⁵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문제의 실제 내용은 조·명 연합군 사령관인 제독 이여송이 장대선을 시켜 일본군의 자진 철수를 종용하고, 퇴로 보장을 요구하는 사령관 고니시와의 밀약으로 조선군 매복부대가 철수하게 된 것이다. 李鑑이 李如松의 밀명에 따라 매복부대에 철수를 지시하자 金應瑞와 朴名賢이 이에 반발하

47)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3일(무진).

48)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49)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2월 10일(을미).

50)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였다. 그러나 명군 지휘관들은 도리어 조선군이 퇴로차단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⁵¹⁾ 宣祖도 尹斗壽를 평양에 급파하여 李鎰을 처벌하려 하였다. 李如松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철수한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이때 李鎰이 巡邊使에서 면직되고 李贊이 기용된 것은 명군 지휘부의 요청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李鎰에게 전가하는 명군 지휘부의 횡포를 알면서도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평양성 공격전의 전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특히 南兵 지휘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는 步兵으로 편성된 이른바 南兵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吳惟忠은 鳥銃 탄환을 가슴에 맞아 부상을 입을 정도로 近接戰을 진두지휘하였고, 朝鮮軍과 함께 舍毬門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던 駱尙志는 긴 창을 이용하여 성가퀴에 뛰어 오르다가 성 위에서 던진 큰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상을 무릅쓰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공격을 계속하는 용맹을 보인 南兵의 지휘관들이다.⁵²⁾

그런가 하면 북명 출신의 사령관 이여송은 山東都御史 周維韓과 吏科給事中 楊廷蘭 등이 본국 조정에 제기한 문제점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그 결과 명군 내부는 물론 명군 지휘부와 조선 조정 사이에도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들의 奏本에 의하면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노획한 首級의 절반이 朝鮮人이며,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1만여 명도 모두 朝鮮人이라는 내용이 화근이었다. 명나라 조정의 방침에 따라 布政 韓就善과 巡按 周維韓 등이 조사관으로 평양에 급파되었다.⁵³⁾ 그리고 조선 측에도 진상을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여송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조선으로서 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⁵⁴⁾ 따라서 평양성 전투의 실정이

51) 柳成龍, 『懲愆錄』 卷二

52)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53) 宋應昌, 「與朝李提督書 初二日」, 『經略復國要編』 卷八

54)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11일(병인).

사실대로 전달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양성 전투에서 야기된 문제로 인해 사령관 李如松이 본국으로부터 문책성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조·명군의 차기 작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여송이 본국으로 소환당하거나 군사를 이끌고 철군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군 지휘부와 교섭하는 임무를 띤 접반사 李德馨은 步兵인 南兵과 騎兵인 北兵의 감정대립을 사건 발단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南兵은 사기가 왕성하고 北兵은 사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사안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北兵 지휘관인 李如栢·張世爵 등이 南兵 지휘관인 王必迪의 인간성을 비난한 것도 갈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왕필적은 북병 출신의 사령관 李如松을 지혜롭지 못하고 신의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난하였다. 평양성을 공격하던 날 예령도 없이 출동명령을 내려 군사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되고, 먼저 성에 오르는 군사에게 주기로 한 포상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명군의 南兵 지휘관인 駱尙志는 鄭崑壽에게 명군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朝鮮人들을 많이 죽였고, 이여송이 南兵 지휘관인 자신을 미워하여 危害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南兵 6백 명에 朝鮮軍 정예 4백을 뽑아 南兵의 軍服으로 변장시켜 1천 명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을⁵⁶⁾ 제시할 정도로 조선에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조선군측에서도 군사들의 군량과 함께 말먹이도 조달해야 하는 北兵보다는 군량만 필요로 하면서 실전에는 북병보다 전력이 뛰어난 南兵들을 선호하게 되었다.⁵⁷⁾

55)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포상금의 액수는 '50냥' 등으로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56)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3일(무진).

5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29~130쪽.

이 같은 南兵과는 달리 騎兵作戰에 애로를 느끼고 있던 北兵들은 朝鮮에 水田이 많기 때문에 騎兵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단 遼西로 돌아가서 대기하다가 땅이 結氷한 후에 다시 출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⁵⁸⁾ 그러나 조선은 명군의 주력인 李如松의 北兵이 조선에서 철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北兵과 南兵 지휘관의 관계 개선은 물론, 명나라 조정의 李如松에 대한 탄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였다.

4. 碧蹄館 遭遇戰과 騎兵 單獨作戰

(1) 碧蹄館 戰鬪의 展開 過程

碧蹄館 戰鬪는 1593년 1월 하순에 坡州로 남진한 조·명군 騎兵이 碧蹄館 일대에서 일본군 歩兵과 싸운 遭遇戰이다.⁵⁹⁾ 따라서 평양성 공방전에 유성룡·이덕형 등 조선 중신들이 참전하여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을 남긴 것과는 달리 벽계관 조우전은 추상적인 상황을 묘사한 기록만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조·명 연합군의 주력인 명군은 平壤城을 탈환한 직후부터 남진하여 1월 10일 밤에 開城府에 입성했다. 병력의 절반이 東坡에 잔류하고 나머지 절반이 臨津江을 도하하여 坡州에 주둔한 것은 軍糧不足을 고려한 때문이

58)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 (을사).

59)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和談階段之戰況』, 『中國歷代戰爭史』 제4 책 426 쪽에 의하면 '大石橋 遭遇戰'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하였는데, 오늘날 곡릉전에 설치된 교량으로 망객현 남쪽에 있다.

다.⁶⁰⁾ 그리고 과주에 주둔한 군사 중에서 선발대로 출동한 부대가 查大受·祖承訓 등의 명군 騎兵과 방어사 高彦伯의 조선군 이었다. 이때 조선군은 방어사 高彦伯을 비롯한 수 명의 지휘를 받는 소규모 騎兵이었을 것이다.⁶¹⁾

이들 조·명군은 迎曙驛(延曙驛?) 앞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였다. 사대수와 고언백의 조·명군이 기습적인 공격으로 초전에 상당한 전과를 올렸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6백여 급을 베었다는 기사는 우의정 兪泓이 6일에 보고한 “일본군 6~7백과 조우하여 4백여 급을 斬獲하였다.”는 기사와도⁶²⁾ 차이가 있어, 과장된 기록으로 판단된다. 25일에 가토오(加藤光泰)·마에노(前野長康)의 搜索隊와 접전하여 60여 급을 베는 것의⁶³⁾ 오기일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승리로 인해 명군은 일본군의 전력을 더욱 얽잡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군은 선발부대가 조·명군에게 패퇴하자 주력군을 礪石峴(숫돌고개) 일대로 진출시켰다. 이때 사대수는 일본군의 대규모 병력이 기동하자 일단 벽제관 부근으로 물러나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대병력으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曲陵川을 건너 望客峴 일대로 진출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李如松은 도중에 방어사 고언백의 부장을 만나 전방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砲兵이 미처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예 기병 1천 기의 호위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착한 조·명군과 이여송의 기병이 합류함으로써 전력은 크게 보강되었을 것이다. 그런

60)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5일(경인).

61) 조선군은 선두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명군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결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62)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5일(경인)·6일(신묘).

63) 李炯錫, 『壬辰戰亂史』上, 1967, 676쪽. 실제로 수색정찰대나 유인조와의 전투에서 4~6백명을 참획하였다고 보기에선 실득력이 부족하다.;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和談階段之戰況』, 『中國歷代戰爭史』 제14책, 424쪽; 申晔, 『再造藩邦志 二』, 『大東野乘』第三十六에는 어두운 새벽에 일본군이 彌勒院 앞 개활지에 주둔하자 이들을 공격하여 130여 급을 베었다고 한다.

데 조·명군의 神機箭 공격을 받고 잠시 주춤거리던 일본군이 조·명군 전력의 취약성을 눈치채자 과감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때 명의 騎兵은 『宣祖實錄』에 “武器와 甲冑도 전혀 없이 맨손으로 肉薄戰을 전개했다.”라고⁶⁴⁾ 할 정도로 거의 비무장 상태나 다름없었다. 柳成龍의 『懲毖錄』에 의하면 기병은 火藥武器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짧고 무딘 칼로 무장한 정도였다. 반면에 일본군은 모두 歩兵으로서 3~4척(90~120센티)의 길고 예리한 칼로 무장하였기⁶⁵⁾ 때문에 전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언백의 조선군이 휴대한 神機箭이 유일한 화약무기이자 대량살상 무기였을 것이다.

李如松의 명군 지휘부는 望客峴을 넘어온 일본군 대부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자 벽제관 부근으로 후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군 전사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여송을 호위하던 심복 부장이 두 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坡州에서 긴급히 출동한 증원부대가 瓮巖(?)을 통과할 무렵에 이미 퇴각하는 조·명군과 합류하였다. 조·명군이 합류한 후 碧蹄館 북쪽 惠陰嶺에 방어진을 편성하자 일본군도 추격을 중지하고 되돌아갔다.⁶⁶⁾ 이로써 벽제관 남쪽 望客峴 일대에서 전개된 조·명군 기병과 일본군 보병과의 전투는 조·명군 騎兵이 섬멸적 타격을 입고 끝이 났다.

이 같은 전투 내용이 『宣祖修正實錄』에는 『宣祖實錄』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臨津江의 해빙으로 인해 상류지역에서 칩으로 만든 밧줄을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어 도하할 때, 인근 주민들이 대거 동원되어 지원했기 때문에 원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여송이 파주에 도착한 후 경솔하게 전진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宣祖實錄』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64)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5일(경인).

65) 柳成龍, 『懲毖錄』卷二의 벽제관 전투 관련 기사 참조; 李肯翊, 『燃藜室記述』卷十六, 「宣祖朝故事本末-求教明朝收復京城-」.

66)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5일(경인)·6일(신묘).

그리고 『宣祖修正實錄』은 명군 查大受가 조선군 高彦伯과 함께 수백명의 기병 선발대를 이끌고 정찰활동을 벌이다가 벽제관 남쪽 礪石峴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여 1백여 급을 벤 것을 벽제관 전투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北兵인 기병부대가 조우전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여송이 기뻐하면서 본대의 출동을 지시한 후 親衛 騎兵 1천여 기를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고 하나, 친위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긴급히 출동했다는 기록도⁶⁷⁾ 있어서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편, 일본군 대부대가 望客峴 後斜面에 매복해 있으면서 불과 수백 명이 고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欺瞞戰術에 명군이 속았다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李如松은 즉각 공격을 개시하였고, 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1만여 명의 일본군이 後斜面에서 望客峴을 넘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당시 명군은 모두 騎兵으로서 短劍을 휴대하고 있었다.⁶⁸⁾ 더구나 작전지역의 道路가 협소하고 진흙이 많아서 騎兵이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이때 일본군은 무려 1미터 정도의 긴 칼을 휘두르며 명군 좌우에서 돌격하여 압박하였으므로 결국 패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는 명군 사령관 李如松이 총애하는 부장 李有升을 비롯하여 80여 명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하였다. 사대수가 일본군의 추격을 저지하는 동안 이여송은 겨우 전장을 빠져 나갔다. 명군의 후속 본대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한 일본군이 추격을 포기하고 되돌아감으로써 일단락된 것이 『宣祖修正實錄』의 기사를 통해 본 벽제관 조우전의 대략적 과정이다.⁶⁹⁾

碧蹄館 遭遇戰에 참전한 조·명 연합군의 정확한 병력수는 알 수 없다. 일본군의 후미를 추격하면서 주력부대의 機動路를 정찰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만큼 機動力이 뛰어난 騎兵으로 편성된 정예부대일 것이다. 이들은

67) 申昉, 『再造藩邦志 二』, 『大東野乘』第三十六.

68)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和談階段之戰況』, 『中國歷代戰爭史』제4책, 424쪽.

69)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이여송은 파주로 퇴각한 그날 저녁에 이여송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통곡하면서 그 사위 王審大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명군은 사대수 군사를 입진강 북안에 주둔시킨 후 동파를 거쳐 개성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최초 접전에서 손쉽게 일본군을 격파하였으므로 자만심이 한층 고조되어 일본군의 誘引·欺瞞戰術에 쉽게 말려들었을 것이다. 이여송은 전투 현장에 도착하자 주력부대의 도착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곧바로 전투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명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대의 주력부대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깊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패전하여 측근의 심복 부하인 把總 2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 우의정 俞泓의 전황보고가⁷⁰⁾ 설득력이 있다.

한편, 遊擊 陳方哲의 碧蹄館 戰鬪에 대한 시각은 명군의 일반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7일에 먼저 출동한 騎兵 5백여 기가 일본군과 접전하자 대규모 伏兵이 가세하였고, 마침 接近路를 정찰하던 李如松이 개입하였다가 함께 포위되었는데, 구원요청을 받은 楊元이 騎兵을 이끌고 달려와 참전함으로써 일본군 2백여 급을 베었고 명군도 많이 전사하였다고⁷¹⁾ 해명하였다. 사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명군의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벽제관 전투 이후로 수일이 경과한 가운데 都體察使 柳成龍의 보고는 한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다. 즉 27일 새벽에 사대수가 조선 방어사 高彦伯과 함께 昌陵 근처에 도착한 후 일본군 수백 명과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李如松이 接近路를 정찰하기 위해 家丁 1백여 명을 이끌고 碧蹄館 부근으로 진출했다가 이들과 함께 접전하여 적을 거의 섬멸시켰고, 고인백의 조선군도 많은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벽제관 전투의 접전 초기상황은 조·명군의 騎兵이 승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기록들이 거의 동일하다. 조·명군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대부대에 포위되어 타격을 입었

70)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6일(신묘). 선조가 都體察使 우의정 俞泓으로부터 벽제관 전투에 관한 공식적 보고를 받은 것은 전투 후로 10여 일이 경과하여 종합된 내용이며, 비교적 정확한 정보일 것이다.

71)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8일(계사).

다는⁷²⁾ 것이 공통적인 줄거리다. 그러나 일본군 대부대가 참전해서 다시 확대된 후반부 전투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발견된다. 특히 과장된 듯한 부분은 이여송이 추격대를 저지하면서 후퇴한 것이나 사상자가 수십 명이라는 내용이다. 李如松을 탈출시키기 위해 심복 부하들의 희생이 컸던 사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知中樞府事 李德馨의 2월 19일 보고에 의하면 벽제관 전투에 참전한 명군 지휘관은 祖承訓·查大受·張彥忠·李寧 등이며 騎兵은 3천여 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군 1천여 급을 참획했다는 부분은 명군의 일방적 주장을 옮긴 듯 하다. 조·명군을 공격한 일본군이 10 배나 되어 수만 명이며 조·명군 기병이 싸우면서 후퇴하는데 명군 3백여 명이 肉薄戰을 벌이다가 패퇴할 즈음 마침 步兵인 南兵이 도착하였으므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덕형이 惠陰嶺에 올라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덕형은 이여송이 혼자 출전했기 때문에 火砲와 같은 大口徑 火器를 수송하지 못하여 神機箭만 발사했고, 적이 鳥銃을 쏘며 먼저 진격해 오자 조·명군이 대적하지 못하여 후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 騎兵 單獨作戰의 失敗와 諸問題

碧蹄館 遭遇戰에서 北兵인 騎兵이 패전한 이후로 명군 지휘부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평양성 공격전에서 步兵인 南兵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후로 騎兵이 단독으로 전개한 전투에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었으므로 더욱 위축되었을 것이다. 날씨가 좋지 않고 道路에 습기가 많아서 작전에 장애가 되며, 都城에는 명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⁷³⁾ 소문을 퍼트렸다. 기병부대의 작전에 불리한 地理的 조

72) 『선조실록』 권35, 선조20년 2월 10일 (을미).

건과 軍事的 환경을 부각시킴으로써⁷⁴⁾ 철군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군은 평양성 전투 이후로 떨어진 사기를 회복하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반면에 이여송은 전투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講和交涉에 동조하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표출시켰다.⁷⁵⁾

당시 강화교섭을 전개하던 명의 遊擊將軍 沈惟敬은 사령관 이여송이 평양성의 일본군을 무사히 도망치도록 退路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碧蹄館 戰鬪에서 명군의 인명손실이 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⁷⁶⁾ 벽제관 전투의 패전원인을 평양성 전투와 결부시키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밖에 경술한 南進, 情報判斷 錯誤, 騎兵作戰 能力의 誤判, 평양성 승리의 주역인 火藥武器의 不在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⁷⁷⁾

한편, 명군 지휘부는 벽제관 전투의 실패를 조선측의 軍糧調達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이에 宣祖는 명군의 軍律에 따라 조선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李如松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그리고 軍糧調達 不實, 日氣惡化 등 10개 항의 이유를 들면서 신속한 군사행동을 요구하였다.⁷⁸⁾ 특히 騎兵을 주력으로 하는 명군이 조선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일곱 번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즉 기병작전이 곤란한 지형에서는 정예 보병을 투입하되 조선군을 先頭部隊로

73)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19일(갑진). 한편 조선군은 명군이 긴급히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군수품을 수습하였는데, 방어서 이빈이 군량 약간과 갑옷 2백여 벌을 이여송에게 전달하자 갑옷 10여 벌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조선군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이덕형이 파악한 전사자는 조·명군과 일본군이 각각 약 5~6백 명이다.

74)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和談階段之戰況』, 『中國歷代戰爭史』 제4 책 425 쪽에 는 기병부대가 '行軍縱隊'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75) 崔韶子,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한울아카데미, 1994, 237 쪽

76)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4일(기미).

77)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和談階段之戰況』, 『中國歷代戰爭史』 제4 책, 427 쪽.

78)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7일(임술).

편성하고 後尾에 명의 主力軍이 진격하는 방안이다. 봄비가 연일 내려서 道路가 질퍽거리므로 騎兵作戰이 곤란하다는 이여송의 핑계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명의 騎兵이 추축이 된 碧蹄館 遭遇戰이 실패로 끝나자 朝鮮은 步兵인 南兵에 더욱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南兵의 증파를 요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명군의 주력인 李如松과 같은 北兵 지휘관들의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병 지휘관들의 親朝鮮의 경향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무된 조선도 經略 宋應昌에게 명군의 南進을 요청하되, 南兵을 선봉으로 삼아 朝鮮軍과 협동하고 그 후미에 본대가 진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⁷⁹⁾

北兵과 南兵에 대한 조선측의 관심은 騎兵 지휘관 李如松 과 步兵 지휘관 駱尙志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 당시 史官은 李如松이 명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大軍을 이끌고 출병하였으므로 嚴明公直하게 지휘해야 함에도 오히려 功勞를 탐한다.”라고 비난하였다. 반면에 남병 지휘관인 낙상지는 “氣概가 호탕하고 용맹스러우며 主張이 분명하여 명군 지휘관 중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⁸⁰⁾

당시 명군 지휘부를 접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鄭崑壽도 평양성 공격전에서 보여준 南兵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참장 駱尙志, 유격 吳惟忠, 유격 錢世禎을 평양성 탈환의 전공자, 참장 修養正과 유

79)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3일(무진);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吳惟忠과 駱尙志의 步兵部隊가 벽제관 전투에 참전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다.

80)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2일(정묘);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9월 1일(임자) 기록에는 李如松을 용모가 걸출하고 局量이 넓고 큰 인물이며, 부대를 잘 통솔하여 주민 피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평양성 탈환전에서 승리하자 太子太保 左都督으로 승진한 내용도 『선조실록』에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여송이 벽제관 전투에서 고전한 후로는 신중을 기하여 싸우지 않았으며, 강화회담의 진행도 이여송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한 원인이라고 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선조실록』과 큰 차이점이다.

격 李都를 명으로부터 軍糧을 지원한 공로자로 지목하였다. 남병 지휘관 낙상지는 이여송이 적을 앞두고 전공을 탐내어 南兵을 제외한 채 자기 騎兵만 이끌고 출동했기 때문에 참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보병인 南兵 지휘관들은 北兵 지휘관들이 일본군을 두려워하여 아예 귀국하고 싶으나 여의치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⁸¹⁾

한편, 이여송은 평양 大同館에서 宣祖를 만나자 자신의 탄핵 문제를 해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宣祖의 出兵要請에 대해서는 經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그 동안 출병하지 않은 것도 經略 宋應昌이나 본국 兵部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⁸²⁾ 즉 사령관인 자신은 군사작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出戰與否는 經略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經略 宋應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備邊司는 李如松의 명군이 출병하지 않는 원인을 碧蹄館 전투에서 패전하여 戰意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병들이 장거리 遠征에 지쳐서 귀국을 희망하는 것도 한 이유로 들었다.⁸³⁾ 결국 宣祖도 經略 宋應昌을 만나서 담판할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한 회담준비를 지시했다.⁸⁴⁾ 그러나 선조는 경략 송응창에게 출병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역시 이여송의 비위를 건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경략 宋應昌도 제독 李如松에게 출병을 강요하기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았다. 碧蹄館 전투의 실패로 전의를 상실한 이여송과 명군 지휘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가 또 다시 패전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⁸⁵⁾

81)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3일(무진).

82)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24일(기묘).

83) 『선조실록』 권38, 선조26년 5월 27일(경진); 권36, 선조26년 3월 13일(무진). 남병 지휘관 낙상지가 이여송이 벽제관에서 패전한 후 일본군을 두려워하여 아예 귀국하고 싶으나 여의치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84)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25일(경진).

85)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4월 1일(을유).

宣祖는 明軍이 도중에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군을 축출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宋應昌과 李如松이 명군을 이끌고 돌아가기 전에 일본군을 축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이 都城을 버리고 남하한 것은 明軍의 戰鬪意志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⁸⁶⁾

이 같은 우려는 領議政 柳成龍이 명에서 파견된 조사관과 회담하는 가운데서도 확인된다. 조사관은 명군이 노획한 日本軍 首級, 벽제관 전투의 승패여부, 사령관 李如松 落馬說의 사실여부, 조선 조정과 명군 지휘관의 갈등 상황, 명군이 조선인들을 괴롭혔다는 소문의 사실여부를 질문하였다. 柳成龍은 명군 지휘관들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⁷⁾ 조사관의 보고내용에 따라 주요 지휘관들이 소환되거나 파병부대가 철군하는 경우에는 攻勢로 전환한 戰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領議政 柳成龍은 벽제관 전투의 실패를 遼東 騎兵이 日本軍 步兵에게 패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戚繼光의 陣法이 攻擊과 機動이 서로 수용하는 가운데 倭軍 防禦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왜적 방어에는 步兵이 騎兵보다 효율적인 것으로⁸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6) 『선조실록』 권41, 선조26년 8월 10일(신묘).

87) 『선조실록』 권45, 선조26년 윤11월 14일(갑오).

88) 『선조실록』 권65, 선조28년 7월 8일(기묘). 이여송이 벽제관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그가 최후를 맞이한 전투와 동일하게 분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1598년(선조 31) 4월에 전개된 廣寧 전투에서 적의 유인전술에 말려 경솔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여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성룡은 이여송이 벽제관 전투와 동일하게 작전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선조실록』 권99, 선조31년 4월 29일(계미)).

5. 南原城 防禦戰과 騎兵 孤立防禦

(1) 南原城 戰鬪의 展開 過程

日本軍은 講和會談의 결렬을 빌미로 삼아 1597년(선조 30)에 대규모 공세를 재개하였다.⁸⁹⁾ 講和會談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南海岸 일대에는 일본군들이 이른바 '倭城'을 구축한 후 분산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丁酉年(1597)에 이들을 주력으로 하면서 본국에서 대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되어 침공을 재개한 것이다. 이때는 1592년 4월의 침공 초기와 달리 左·右軍으로 양분하여 全羅道를 점령목표로 삼고 있었다.

특히, 左軍이 海上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597년 7월 중순에 漆川梁海戰에서 타격을 입은 조선 水軍의 해상 초계활동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웅천·안골포·가덕도 등의 근거지에서 7월 29일에 출항하여 固城 일대에 상륙한 8월 초순부터는 泗川을 집결지로 삼아 陸路로 이동하였다.⁹⁰⁾

일본군 左軍·右軍은 全羅道 지역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慶尙道를 東에서 西로 횡단하는 機動路를 이용하였다. 특히 左軍은 전체 14만 중에서 우키다(宇喜多秀家)를 사령관으로 하여 고니시(小西行長)·시마즈(島津義弘)가 지휘하는 부대를 주력으로 49,600여 명이 동원되었는데, 전체의 35%를 상회하는 병력이다. 토도(藤堂高虎)·가토오(加藤嘉明)·와키사카(脇坂安治)·구루시마(來島通總) 등의 水軍 7,200여 명이 蟾津江을 타고 河東에 상륙한 후 求禮에서 합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左軍은

89) 許善道, 『壬辰倭亂論 - 올바른 새로운 인식』,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허선도 교수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를 광의의 임진왜란으로 설정하였다. 필자도 이에 따랐다.

90) 徐仁漢, 『壬辰倭亂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225~226 쪽

56,800명으로 전체의 40%가 넘었다.⁹¹⁾

그런데 이들 左軍은 固城→泗川→河東→南原을 경유하여 全州 점령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右軍의 일부도 합류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좌군과 함께 활동하는 실제병력은 우군과 비슷하거나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右軍의 경우는 주력군이 陝川→居昌→安義→六十嶺→鎭安을 거쳐 역시 全州를 지향하는 가운데 일부가 安義에서 남하하여 咸陽→雲峰→南原을 공략한 후에 全州로 집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左軍 주력에 水軍이 합류하여 南原을 지향하고, 右軍의 일부가 南原을 경유하여 全州로 지향하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일본군 左軍을 주력으로 하는 대부대와 조·명 연합군이 南原城에서 攻防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南原城 防禦戰은 명의 騎兵을 主力으로 한 조·명군의 孤立防禦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방어전을 지휘한 總兵 楊元은 1593년 1월의 平壤城 攻擊戰에서 전공을 세우고, 碧蹄館 遭遇戰에서는 일본군의 포위공격으로부터 사령관 李如松을 구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⁹²⁾ 일본군을 앞잡아 본 인물이라는 점도 작전에 영향을 미친 특징일 수 있다. 주요 지휘관의 적에 대한 인식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楊元이 기병부대를 이끌고 南原으로 내려가기 전인 1597년 5월 8일 慕華館에서 宣祖와 재회한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입국하여 대면한 자리에서 楊元이 宣祖에게 日本軍을 防禦하는 要衝地에 대해 질문하자, 선조가 南原을 全羅道の 要害處로 천거하였다. 이때 楊元은 자신의 駐屯地는 반드시 騎兵作戰이 용이한 평탄한 지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천 명의 騎兵을 주축으로 하여 약 15일 정도 守城作戰을⁹³⁾ 전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1)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74, 214~215쪽.

92)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19일(계묘).

93)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8일(무술). 3천 명의 군량 문제를 질문하자 宣祖는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南原城이 부실하다는 楊元의 지적에 따라 南原府使 崔濂과 全州府尹 朴慶新이 중심이 되어 수축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고, 명의 軍法에 따라 조선군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楊元에게 이양하였다. 남원성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조·명군의 指揮權이 명군 지휘관 양원에게 이양된 것이다. 양원은 자신의 요구대로 南原城을 수축하면, 全羅道가 金城湯池와 같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⁹⁴⁾

따라서 宣祖도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선조가 南大門 밖까지 따라 나가 楊元 부대의 출전을 전송한 것은⁹⁵⁾ 그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컸기 때문일 것이다. 宣祖의 이 같은 기대는 우참찬 李恒福이 '南原城은 작은 돌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마치 제비 둥지 같고, 사면이 絶險의 要塞地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방어하기 좋은 성'이라는 보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⁹⁶⁾

그런데 南原으로 내려가는 楊元의 騎兵部隊가 휴대한 武器는 매우 부실했다. 양원 휘하의 毛承先(母承先, 田承先?)이 영의정 柳成龍을 방문하여 쇠창을 제작할 쇠붙이를 요구한 것을 보면 遼東에서 파견된 北兵들은 火藥武器는 고사하고 금속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北兵인 祖承訓 부대의 경우를 보면 弓矢로 무장한 군사가 1천 명에 1백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棍棒(몽둥이)을 무기로 휴대하였다. 전체의 10% 정도가 겨우 長兵器인 弓矢로 무장한 셈이다. 명군이 경솔하게 함부로 접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도 이 같은 戰鬥裝備의 부실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軍糧支援 문

94)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8일(무술). 양원은 선조에게 조선군 지휘관인 成允文과 金應瑞 휘하의 4천 명을 지휘할 상급지휘관을 동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조가 도원수 權慥를 통해서 양원 부대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나 이들과 남원성 방어전과의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95)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21일(신해).

96) 『선조실록』 권74, 선조29년 4월 23일(기미). 성 안에 비축된 軍糧은 수백 석에 불과하며, 長片箭 1백여 部가 비축된 것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제도 조선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⁹⁷⁾

한편 조선군은 全羅兵使 李福男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고, 求禮縣監 李元春과 조방장 金敬老 등이 계속해서 합류함에 따라 양원의 지휘 아래 조·명 연합군이 방어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군의 병력수는 천명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남원성의 조·명 연합군은 총 4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⁹⁸⁾ 고니시(小西行長)와 소오(宗義智)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8월 13일부터 남원성 외곽의 주요 통로를 차단하여 포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南原城 戰鬥의 서막은 일본군 1백여 명이 성에 접근하여 鳥銃을 사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초기 전술은 3~4명 혹은 4~5명으로 편성된 여러 조를 교대로 남원성에 접근시켜 사격과 퇴각을 반복하는 일종의 攪亂作戰이었다.⁹⁹⁾ 이때 조·명 연합군은 楊元의 지휘하에 李新芳은 東門, 蔣表는 南門, 毛承先은 西門, 李福男의 조선군은 北門을 담당하여 수비하였다.¹⁰⁰⁾

본격적인 공방전은 14일부터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이미 南原城 외곽을 포위한 상황에서 雲梯와 같은 공성장비를 대거 동원하고, 돌맹이·짚단·나무뿔 등을 이용하여 외곽의 참호를 메웠다. 그리고 樓閣에 올라가 남원성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鳥銃 사격을 가하자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조·명군의 사기도 저하되었다. 일본군은 남원성 서쪽의 萬福寺에서 거대한 四天王像을 수레에 싣고 성곽 주변을 돌면서 시위를 벌여 조·명군의 공포심을 더욱

97)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15일(을사). 명군의 역량을 파악한 영의정 유성룡은 鳥嶺 이북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조선군으로 방비하면 1년 뒤에는 조선의 군량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명군의 후광을 받으면서 조선군을 전투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98)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臺北), 「再援朝鮮與稷山戰鬥」, 『中國歷代戰爭史』 제4책, 434쪽에 양원의 기병은 3,100여 명으로 보고, 435 쪽에는 남원성에서 양원이 지휘한 방어병력을 5천 명으로 보고 있다.

99) 柳成龍, 『懲愆錄』 卷二의 남원성 전투 관련기사 참조.

100)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30년 9월 1일(기축).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楊元은 騎兵 1천 기를 이끌고 출성하였다. 조·명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출병이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대적하지 않았으므로 騎兵의 長技를 발휘할 수도 없었다.¹⁰¹⁾ 따라서 이들은 騎兵이 아닌 步兵으로서 취약한 기병 무기를 가지고 守城戰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비록 소수의 조선군이 참전하였으나 이들이 휴대한 勝字銃筒이 유일한 화약무기로서 고립 방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력을¹⁰²⁾ 발휘했을 것이다. 일본군의 공격전술은 바로 조·명군의 長兵器인 弓矢와 銃筒의 화살과 탄환을 소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전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화살과 탄환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16일 밤의 일본군 기습공격은 이미 조·명군의 長兵器가 무용지물이 되고, 외부의 지원도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蔣表가 담당한 南門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어졌다. 급기야 楊元은 騎兵 3백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西門으로 탈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원은 탄환 두 발을 맞고 겨우 10여 명의 騎兵들과 탈출할 수 있었다.¹⁰³⁾ 南原城 防禦戰은 楊元의 家丁 1백 명 중에 73명이 전사할¹⁰⁴⁾ 정도로 조·명군이 섬멸적 타격을 입고 끝이 났다.

(2) 騎兵 孤立防禦의 失敗와 諸問題

宣祖는 楊元의 騎兵部隊를 南原으로 내려 보낸 후에 이들 3천여 騎兵으

101) 趙慶男, 『亂中雜錄』三, 『大東野乘』卷二十八 정유년 8월 11일~14일 기사 참조.

102) 許善道, 『神器秘訣 研究』, 『朝鮮時代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84, 215~216 쪽

103)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18일(병자); 柳成龍 『懲愆錄』卷二의 남원성 전투 관련기사 참조.

104) 『선조실록』 권92, 선조30년 9월 14일(신축).

로는 全羅道로 침공하는 日本軍의 기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리고 南原을 고수하겠다는 양원의 장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다. 지휘관인 楊元은 겁이 많고, 기병부대의 전투장비도 매우 부실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判中樞府事 尹斗壽도 吳惟忠의 步兵이 楊元의 騎兵보다 전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領議政 柳成龍도 遼東의 騎兵들이 短劍을 주력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원 부대의 전술은 刀劍과 弓矢를 주무기로 하여 싸우는 전통적인 北兵의 騎兵戰術이었다.¹⁰⁵⁾

조선측의 우려가 구체화된 것은 양원이 남원에 도착하여 南原城을 증개축하는 과정이¹⁰⁶⁾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즉 築城法이 浙江地方에서 倭寇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축조하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銃眼마저도 모두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北兵 출신의 騎兵部隊 지휘관인 楊元이 浙江의 왜구 방어전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로 인식하였다. 이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 없었던 조선측에서는 飛樓를 이용한 攻城作戰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면서 우회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¹⁰⁷⁾ 그러나 楊元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總兵 楊元의 주도로 南原城 수축작업이 추진될 무렵 南原府使 任鉉 등도 남원성의 효과적인 방위대책을 사령관 양원에게 건의하였다. 즉 남원성 외곽의 蛟龍山城이 天險의 要塞이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지키게 하고, 남원성을 남원 주민과 군사들이 방어하면 蛟龍山城과 南原城이 子母陣이 되어 호응함으로써 적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양원이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써 묵살되고 말았다.

이들의 건의대로 남원성과 인근의 蛟龍山城을 선점하여 犄角之勢를 이루

105) 『선조실록』 권88, 선조30년 5월 15일(을사)·18일(정축)·20일(경술)·22일(신해).

106) 楊元이 전력보강 작업을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벽 丈 증축, 성밖 양마장의 포구 설치, 성문 위에 대포 3~4문 설치, 참호 1~2丈 추가 굴착 등이다.

107) 『선조실록』 권90, 선조30년 7월 5일(갑오).

게 되면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원의 기병부대가 3천 명에 불과하고 조선군도 소수이므로, 砲手와 殺手 및 銃筒과 弓矢를 추가로 지원하고 蛟龍山城 別將도 조정에서 엄선하여 임명해 달라는 조선군 지휘관들의 건의는,¹⁰⁸⁾ 그들도 역시 양원의 호언장담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北兵의 長技는 騎兵戰이기 때문에 騎兵戰術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포위된 성 안에서는 기병전술이 무용지물이므로 외부 지원부대와와의 연계된 작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령관인 양원이 기병전술을 연마한 北兵 출신의 지휘관인 까닭에 步兵戰術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약점이었다.¹⁰⁹⁾

宣祖는 처음부터 南原城 築城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하면서도 대부대가 아니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말을 양원에게 해 주지 못하였다. 또한 宣祖는 楊元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만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¹¹⁰⁾

守城戰을 전개한 양원의 기병부대는 겨우 한 차례 성문을 열고 나가 日本軍을 공격했다. 그러나 機動力과 衝擊力으로 적을 압도하는 騎兵戰術을 한 번도 구사하지 못하였다. 특히 全州에 주둔한 陳愚衷 부대가 응원하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서는 출성공격을 제대로 전개할 수도 없었다. 진우충이 軍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원이 선조에게 고백한 것처럼 3천 騎兵을 이끌고 들판에서 접전했다면 쉽사리 패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¹¹⁾ 즉 騎兵의 長技를 살릴 수 있는 들판에서 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양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108)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6일(갑자).

109)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15일(계유). 화약무기인 大砲가 남원성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조·명군의 개인무기는 오히려 평양성 전투 당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10)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15일(계유).

111) 『선조실록』 권92, 선조30년 9월 14일(신축).

南原城의 패전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楊元의 對倭寇 戰術不在와 처음부터 무리한 防禦戰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원이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작전지역의 道路나 地勢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불리 남원성 방어를 지원한 것은 경솔한 처사로 비판받을 만하다. 그런가 하면 명군의 전력에만 의존하고 조선군의 지원과 협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¹¹²⁾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명군의 남원성 방어 실패는, 이 소문을 들은 都城民들의 피난행렬이 줄을 이룰 정도로 수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¹¹³⁾

6. 맺음말

명의 騎兵이 주력이 되었거나 조·명군 기병이 단독으로 전개한 전투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朝·明軍 騎兵作戰의 展開 樣相을 繼起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전투에서 파생된 문제점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고 한다.

명의 대규모 군사가 입국하여 최초로 전개한 平壤城 攻擊戰은 장차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투라는 점에서 朝鮮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宣祖는 南兵인 步兵이 騎兵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작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주목하였다. 이때 李元翼은 선조에게 南兵 지휘관인 吳惟忠 과 駱尙志 를 평양성 탈환전의 최고 공로자로 소개하면서, 南兵이 3천 명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1만 명을 증원하면 北兵을 제외하고도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¹⁴⁾

112)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27일(을유).

113) 『선조실록』 권91, 선조30년 8월 21일(기묘).

114)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남병 지휘관 오유충은 2만 병력만 더 있으

그리고 명의 火藥武器와 그 운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砲聲으로 인해 人馬가 놀라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명군은 軍馬가 포성에 놀라 날뛰기 때문에 砲聲을 싫어했다. 한편 宣祖는 전후에 조선군도 명군으로부터 화약무기 사용법을 도입하여 반드시 숙달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명군의 虎蹲砲 성능과 焰硝製造法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¹¹⁵⁾

명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동원한 화약무기는 佛狼器砲·虎蹲砲·滅虜砲 등과 같은 비교적 口徑이 큰 무기였다. 이 같은 大砲로 城壁이나 城門을 파괴한 후 步兵이 일제히 성으로 돌입하고 뒤이어 騎兵을 투입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진입작전에 소요된 시간은 사격개시로부터 불과 3~4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짧았다. 이를 계기로 선조는 화약무기를 동원한 火攻作戰의 위력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¹¹⁶⁾ 그리고 南兵 지휘관 낙상지가 조선군의 天字銃筒에 대형 板木을 장전하여 사용한 사실도 선조가 火攻作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¹¹⁷⁾

이와 동시에 宣祖는 평양성 탈환전의 결과가 명군의 작전이 주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군사들이 용감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이때 李元翼이 “戰功을 세우려고 싸워서 승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자,¹¹⁸⁾ 병조참판 沈忠謙은 ‘平壤大捷’이 명의 위엄을 크게 떨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¹¹⁹⁾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조선측의 관심은 평양성 공격전이 비록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그 후유증이 벽제관 전투로 이어지는

면 국왕이 군진 뒤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장담하였다.

115)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10일(을미)·20일(을사).

116) 『선조실록』 권49, 선조27년 3월 20일(무술). 평양성으로부터 5리쯤 떨어진 곳에 포를 방열하여 일제히 발사한 것을 보면 이들 화기의 유효사거리는 5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117) 『선조실록』 권50, 선조27년 4월 17일(을축).

118)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119)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1일(병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조·명군에 대하여 평양성의 守城戰을 전개했던 고니시(小西行長)가 지휘한 일본군의 전술운동도 비교 분석하였다. 視覺 및 聽覺에 의한 信號體系, 鳥銃의 위력과 突擊時 鳥銃의 운용방법, 槍劍의 운용방법 등 기병 중심의 조·명군에 대항하는 일본군의 步兵戰術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조선은 평양성 전투의 결정적 勝因을 명군 火炮의 위력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¹²⁰⁾

한편 평양성 전투는 騎兵과 步兵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명의 吏科給事 楊廷蘭이 명군이 거둔 戰果에 朝鮮人의 首級이 포함됨으로써 부풀려졌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1천여 급의 절반이 조선인이며, 불타 익사한 1만여 명은 모두 조선인이라는 주장이다. 楊廷蘭은 李如松의 과장된 戰功書 작성에 經略 宋應昌도 연루된 것으로 혐의를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곤경에 처한 인물은 평양성 전투에서 조·명군을 직접 지휘한 提督 李如松이었다. 따라서 그의 변명도 절실할 수밖에 없다.¹²¹⁾

이 내용이 알려지자 李如松이 직접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개탄하면서 조선인을 죽이거나 婦女子를 겁탈하는 행위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한 軍紀를 확립한 지휘관으로 부각시키면서 身病의 악화를 이유로 사령관 교체를 건의하였다. 한편으로 조선은 어떤 형태로든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뜻밖의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李如松을 구명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신을 명나라 조정에 파견하여 사실을 해명하도록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¹²²⁾

120)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20일(을사);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74쪽.

121)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6일(신미). 이여송은 조선 국왕이 향을 피워 하늘에 빌고, 자문을 띄워 자신에게 사례하고, 조선의 신민들이 모두 길에 나와 향을 피워 하늘에 빌고, 역시 자신에게 사례한 행위는 명군이 그들의 자제와 부형을 죽이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명나라 조정에서 보낸 문서의 草案을 살펴본 李如松이 만족할 정도로 그를 위해 변명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¹²³⁾ 이는 제독 李如松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성이 탈환전에서 南兵의 戰功이 北兵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李如松은 자신이 소속된 北兵을 두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이 명에 알려지지 않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것이다. 宣祖는 李好閔이 작성한 草案을 南·北兵 지휘관들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신들의 공적이 자세히 기술된 내용을 확인한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¹²⁴⁾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조선측은 李如松이 祖上 대대로 北兵 출신인 관계로 平壤과 開城을 수복한 후에 戰功을 논하면서 功勞가 많은 南兵을 낮게 평가한 반면에 北兵의 전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불화가 생겨 군중에 헛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은 布政 韓取善을 巡按御史로 임명하여 平壤과 開城 등 전투현장에서 사건의 전말과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조선도 李如松이 먼저 朝鮮人을 선별함으로써 1천여 명을 구출한 사실과 이를 위해 사전에 白旗를 내걸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미리 알려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¹²⁵⁾

평양성 탈환전 이후로 제독 이여송이 본국의 감찰을 받게 되자 그 영향이 南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南兵 지휘관 吳惟忠은 攻擊戰에서 몸에 총탄을 맞으면서 용감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¹²⁶⁾ 宣祖는 이 사실에 분개하면서 吳惟忠을 최고의 戰功者로 평가하

122)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16일(신미).

123)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20일(을해). 특히 이여송에 대해서는 “몸을 솟구쳐 먼저 올라가서 여러 장수를 독려하여 진입하였다.”라고 하여 크게 부각시켜 주었다.

124)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26년 1월 1일(병진).

125) 『선조실록』 권37, 선조26년 4월 21일(을사).

126) 崔韶子,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한울아카데미, 1994, 232쪽의 주기 16)에 의하면 “이여송이 평양전에서 先登

였다.¹²⁷⁾

조선이 서면으로 진상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巡按御史 韓取善은 義州에서 平壤·開城·碧蹄 세 곳의 주민 각각 5~6명과 면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문제의 발단이 된 평양성 공격전을 포함하여 이여송의 騎兵이 실패한 碧蹄館 戰鬪의 敗因과 問題點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조선은 한취선의 요구에 따라 주민 4~5명씩을 보내되, 承文院에서 작성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¹²⁸⁾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실패한 碧蹄館 戰鬪와 함께 앞서 승리한 平壤城 戰鬪가 명나라 조정의 감찰대상이 되었던 것은, 과병부대의 주력인 騎兵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로 참전한 步兵이 평양성 탈환전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碧蹄館 遭遇戰에서 야기된 기병부대의 作戰地形에 대한 문제점은 극복되지 않았다. 벽제관 전투 후반부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楊元이 騎兵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남원성 방어전에서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실패를 거듭한 것이다. 남원성 인근지역이 騎兵作戰에 용이한 개활지라는 점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고립된 남원성에서 守城戰을 전개하는 경우에 기병작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초에 平壤城과 碧蹄館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와 1597년 전쟁이 재연된 후기의 南原城 전투는 모두 명의 騎兵을 주력으로 하여 편성된 조·명 연합군의 전투이다. 명군이 주력이기 때문에

者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5천 냥의 논공행상을 시행하지 않아 南兵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총병관 王保가 반란이라고 논고하여 南兵 1천 3백 명이 주살된 비극이 있다.”라고 하여 심각했던 후유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127) 『선조실록』 권47, 27년 1월 16일(을미). 선조는 이 사실을 명의 조정에 알릴 수도 없는 실정을 통탄하면서 별도의 선물을 보내 치하하였다.; 『선조실록』 권47, 27년 1월 18일(정유). 병조판서 이덕형이 오유충을 직접 만나 총상을 확인하고 오유충이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선조는 추가로 선물을 보내어 위로하였다.

128) 『선조실록』 권38, 선조26년 5월 17일(경오).

조선군의 지휘권도 명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따라서 명군에 비해 소수인 조선군은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明軍 騎兵은 전체 병력의 80%에 달하는 다수가 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南兵보다도 戰果를 올리지 못하였다. 北兵으로 불리는 騎兵部隊는 武裝이 부실한 北方民族을 상대로 하는 騎兵戰鬥에는 경험을 축적하였으나, 鳥銃과 槍劍을 휴대한 훈련된 正規步兵을 상대로 하는 전투에서는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朝鮮의 地理的 特性과 作戰環境을 고려하지 않은 채 ‘天兵’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며 경솔하게 접전한 것도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朝鮮은 北兵인 騎兵보다는 步兵인 南兵의 전술이 對倭寇 戰術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威法’으로 불리는 戚繼光의 전술을 『紀效新書』를 통해 도입하고, 訓練都監을 창설하여 새로운 步兵戰術을 전군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원고투고일: 2004. 3. 4, 심사완료일: 2004. 4. 1)

주제어: 임진왜란, 조·명 연합군, 기병작전, 보병, 조우전, 고립방어

K C I

<ABSTRACT>

Cavalry Engagements
Involving the Allied forces of Chosun and
Chinese Ming Troops

Suh, In-Han

The Imjin-year war broke out in April 1592, but the Chosun government requested to the Chinese Ming dynasty for military aid only during May when the defense perimeter at the Imjin-gang river was shattered. 5,000 Ming troops recruited from the Yodong/요동 area were dispatched and arrived at Chosun in July, but they quickly retreated after the assault upon the Pyeongyang-seong/평양성 fortress failed. Later, admiral Lee Yeo Song(李如松) assumed control over the troops, entered the Chosun territory with 40 thousand cavalries and 10 thousand infantry soldiers under his command, and resumed attacks and assaults upon the Pyeongyang-seong fortress for three days, starting on January 6th 1593. This assault was the first and also a resounding success for the allied forces of Chosun and Chinese Ming troops(of which the number of soldiers mounted to almost 45 thousand). The victory demonstrated an effective strategy of combining forces of the (a) main cavalry forces and (b) infantry units that were utilized in a relatively smaller scale yet in a more effective fashion. There were, although, some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cavalry units which were hailing from the Northern areas and the infantry soldiers from the Southern areas. But the battle at the Pyeongyang-seong fortress provided the allied forces with a significant chance of turning the tides of war to their favor.

And the battle itself also cast a distinct influence upon the results of other engagements as well.

Almost 3 weeks later, a scout party comprised of cavalries from the allied forces that were reconnoitering the nearby areas of and potential passage ways to the Capital, encountered and engaged a small unit of Japanese soldiers in a battle later named as the Byeokjae-gwan/벽제관 engage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only a small contingent of Nambyeong/南兵 infantry soldiers unexpectedly proved their significant usefulness in garnering a victory at the Pyeongyang-seong assault, Lee Yeo Song, who was actually more of a leader of the Pukbyeong/北兵 forces, set his mind upon proving this time the efficiency of the cavalry units. Moreover, an ensuing victory from a minor engagement where merely cavalries were involved, only fueled his rather misguided determination that led him to an unfortunate defeat in which he was totally deceived and allured into a trap with his guards. That defeat marked the first defeat in a battle fought only with cavalry units, in a geographical situation where cavalry engagements were simply neither efficient nor favorable. After this disastrous encounter, Lee Yeo Song concentrated more on peace negotiations rather than actual military engagements. The Ming force cited unfavorabl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area in order to justify their own attempts at the retrieval of their troops. In the meantime, the Japanese were provided with a welcome relief time to reorganize their troops and boost their morale.

Later, the Japanese troops re-invaded the Chosun territory in 1597 when all peace negotiations had failed, and newly targeted the Jeonra-do/全羅道 province area. The following engagement to protect the Namweon-seong/南原城 fortress marked another example of a misuse of cavalry units inside an undesirable situation for cavalry engagements that would hinder the participants from using their own strengths. Aside a small group of Chosun infantry soldiers, the main force of the engagements were the 3 thousand cavalries under command of Ming commander Yang Weon/楊元, yet they

failed again to put up a successful fi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The Chinese Ming force, comprised mainly of cavalry units from the Northern area, allied themselves with the Chosun troops in their conflict with the Japanese, but with the exception of the Pyeongyang assault where cavalry units and infantry soldiers joined their forces, the Ming troops failed in achieving victory both in the Byeokjae-gwan and Namweon-seong engagements, when they operated with cavalries alone.

Key Words: The Imjin-year War, Allied Forces of Chosun and Chinese Ming Troops, Cavalry Engagements, Infantry Units, Close Encounters, Defense Strategies in Isolated Fashions

K C I